

04 2027학년도 정시

대학마다 셈이 다릅니다

환산점수와 반영 비율

- ◆ 이 자료는 **무료**입니다.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 ◆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CONTENTS

01 먼저 사실부터	2
02 무엇이 갈리나	3
03 어떻게 계산하나	4
04 그래서 무엇을	5
05 자주 묻는 것	6

무엇이 들어 있나

- ◆ 대학이 다르게 정하는 넷 — 반영 비율 · 표준점수냐 백분위냐 · 탐구 셈 · 영어
- ◆ 같은 성적표로 결과가 갈리는 사례 — 계산하면 바로 나옵니다
- ◆ 직접 계산하는 다섯 단계 · 대학 서넛을 나란히 놓는 법
- ◆ 환산점수를 대학끼리 직접 견주면 안 되는 까닭 — 만점이 다릅니다

01 · 먼저 사실부터

같은 점수, 다른 결과

「제 점수로 어디까지 되나요?」

이 질문에는 「어느 대학의 셈으로요?」 라고 되물어야 합니다. 대학마다 계산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성적표를 놓고도 A대학에서는 상위권, B대학에서는 중위권이 되는 일이 흔합니다.

대학이 다르게 정하는 것이 넷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다른가
영역별 반영 비율	국어 30 · 수학 40 처럼 가중치가 다릅니다
무엇을 쓰나	표준점수인가 백분위인가
탐구 셈	몇 과목 · 변환표준점수를 쓰나
영어·한국사	가산인가 감산인가 · 얼마나

이 넷을 곱하면 대학마다 전혀 다른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시는 「내 점수」가 아니라 「그 대학에서의 내 점수」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정시에서 가장 큰 이득이 나는 자리입니다. 공부를 더 하지 않고도 유리한 곳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각 대학 정시 모집요강의 수능 반영 방법, 대학·학과·연도마다 다릅니다.

02 · 무엇이 갈리나

반영 비율이 가장 큼니다

넷 가운데 **영역별 반영 비율**이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수학이 강하고 국어가 약한 학생**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학의 셈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 학생에게
A대학	20%	40%	20%	20%	유리합니다
B대학	35%	25%	20%	20%	불리합니다

같은 성적표인데 결과가 갈립니다. 그리고 이건 **계산해 보면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 짐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열별로 경향이 있습니다

자연계는 대체로 **수학과 과탐**을 크게 봅니다. 인문계는 **국어와 사탐**을 크게 보는 곳이 많습니다. 상경계는 수학을 크게 보는 곳이 혼합니다.

다만 **이건 경향이지 규칙이 아닙니다**. 같은 계열에서도 대학마다 다르니 반드시 **요강으로 확인**하십시오.

영어의 무게가 대학마다 크게 다릅니다

앞서 다룬 대로 영어는 **반영 비율에 넣는 곳과 총점에 가·감산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감산 방식에서는 **등급 사이의 점수 차**가 대학마다 크게 벌어집니다. **2등급에 거의 손해가 없는 곳**과 **뚜렷하게 밀리는 곳**이 함께 있습니다. **영어가 아쉬운 학생은 감점이 작은 곳을 찾는 것이 실질적인 전략**입니다.

표의 비율은 설명을 위한 예시이며 특정 대학의 값이 아닙니다. 실제 비율은 각 대학 요강에서 확인하십시오.

03 · 어떻게 계산하나

직접 해 보시면 됩니다

환산점수 계산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요강에 식이 적혀 있습니다.

차례	무엇을
1	요강에서 영역별 반영 비율 을 찾습니다
2	표준점수인지 백분위인지 확인합니다
3	내 점수에 비율 을 곱해 더합니다
4	영어 가·감산 을 적용합니다
5	대학 서넛 을 같은 표에 놓습니다

5번이 요령입니다. 한 대학만 계산하면 그 숫자가 큰지 작은지 모릅니다. **서넛을 나란히 놓아야 「어디가 나에게 유리한가」가 보입니다.**

비교는 순위로 하십시오

대학마다 **만점이 다릅니다**. 1000점 만점도 있고 500점 만점도 있습니다. **환산점수 자체를 대학끼리 견주면 안 됩니다.**

대신 「**작년 컷과 내 환산점수의 거리**」로 보십시오. 그 대학의 작년 70%컷이 900이고 내 환산이 905면 **그 대학 기준으로** 위입니다. 이 거리를 대학끼리 견주는 것이 맞는 방법입니다.

다만 작년 컷은 작년 것입니다

앞서 수시에서 다룬 것과 같습니다. **합격선은 그해 지원자가 만듭니다**. 게다가 정시는 수능 난이도에 따라 점수대가 통째로 움직입니다. **작년 컷을 그대로 올해에 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아니라 「내가 작년 기준 몇 등쯤인가」**로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출처: 각 대학 정시 요강의 환산 방법. 계산 방법에 대한 설명은 저희 판단이며, 대학마다 식이 다릅니다.

04 · 그래서 무엇을

견주는 차례와 점검표

종이 한 장에 대학을 가로로, 항목을 세로로 적으시면 됩니다.

항목	대학 1	대학 2	대학 3
국어 반영 비율	☐	☐	☐
수학 반영 비율	☐	☐	☐
탐구 반영 비율· 과목 수	☐	☐	☐
영어 처리 방식	☐	☐	☐
내 환산점수	☐	☐	☐
작년 컷과의 거리	☐	☐	☐

환산점수를 볼 때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요강에서 **영역별 반영 비율** 을 찾았는가
- ☐ **표준점수** 인지 **백분위** 인지 확인했는가
- ☐ 탐구를 **몇 과목** 세는가
- ☐ **변환표준점수** 를 쓰는 곳인가
- ☐ **영어** 가 비율인가 가·감산인가
- ☐ 대학 **서넛을 나란히** 계산했는가
- ☐ 환산점수를 **대학끼리 직접 견주고** 있지 않은가
- ☐ 작년 컷을 **올해에 그대로** 대고 있지 않은가

일곱째를 조심하십시오. 만점이 다른 점수를 나란히 놓으면 아무 뜻이 없습니다. 「작년 컷과의 거리」로 견주셔야 합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산은 하루면 하십니다.** 요강에 식이 적혀 있고 곱하고 더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 하루를 안 하고 상담부터 받는** 분이 많습니다. 계산을 해 오시면 상담이 「어디를 쓸까」에서 시작합니다. 안 해 오시면 **첫 시간을 계산으로** 씁니다. 그건 아까운 시간입니다.

05 · 자주 묻는 것

환산점수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계산기 서비스를 쓰면 되지 않나요?

쓰셔도 됩니다. 다만 결과를 그대로 믿지는 마십시오.

계산기는 **대학이 공개한 식을 넣어 둔 것**이라 대체로 맞습니다. 문제는 **식이 바뀌었을 때**입니다. 요강이 정정되거나 반영 비율이 달라지면 **반영이 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 가능성 몇 %**」를 보여 주는 서비스는 조심하십시오. 그 확률을 만들 근거가 공개 자료에는 없습니다. 앞서 다룬 대로 **합격선은 그해 지원자가 만들고, 그건 마감 전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계산은 계산기로, 판단은 스스로** 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자리 두셋은 요강을 직접 보고 손으로** 확인하십시오.

Q. 반영 비율이 유리한 곳만 골라 쓰면 되나요?

그 방향이 맞습니다. 다만 남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수학을 크게 보는 대학」은 **수학이 강한 학생이 다 같이** 봅니다. 그러면 **그 대학에 수학 강한 학생이 몰려** 컷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리한 곳**」이 곧 「**쉬운 곳**」은 아닙니다. 유리한 것은 **같은 자리를 놓고 겨룰 때 내가 덜 손해** 본다는 뜻이지, 경쟁이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도 **반영 비율을 보는 것이 안 보는 것보다 낫습니다.** 불리한 셈을 쓰는 곳에 쓰면 **확실히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손해를 피하는 것**까지가 이 계산의 값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한 줄로 남기면

정시에서 내 점수는 하나가 아니라 **대학 수만큼** 있습니다. 서넛을 나란히 **계산해 보십시오.** 하루면 됩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공개된 정시 반영 방법을 정리한 것입니다. **표의 비율은 설명을 위한 예시이며 특정 대학의 값이 아닙니다.** 반영 방법은 대학·학과·연도마다 다르니 반드시 요강을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는 합격 여부나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